



3월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3기 삼락농정위원회 출범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장, 김송일 행정부지사, 박홍식 제3기 삼락농정 민간위원장, 농업인 대표, 전문가, 유관기관 등 188명으로 구성된 제3기 삼락농정위원회 회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실현

제3기 삼락농정위원회 출범...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전문가 발굴과 참여 확대

전북도는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 188명으로 제3기 삼락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성환 도의회 의장, 농업인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출범식을 가졌다.

삼락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삼락농정 추진을 위해 농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농정의 의사결정에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거버넌스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1~2기 4년 동안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번기 공동급식 등 차별화된 삼락농정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 발전시켰고, 신규 정책·사업 발굴과 분야별 농정 현안과제 토론 및 대안 제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헌법 개정 건의 등 전북 농정에 큰 역할을 해왔다.

위원회는 농민정책, 농촌활력, 식량, 축산, 수산 등 10개 분과와 운영협의회로 구성하고, 행정과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연 50여회 이상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제3기 위원회는 농업인이 89명이고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 64명,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년간 10개 분과 및 운영협의회에서 전북 농정의 주요 현안 의제와 정책을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3기 민간위원장은 지난 3월4일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박홍식 의장으로 출범식에 앞서 개최된 위원회 운영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으며 향후 2년간 위원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 지난 4년간 소통과 화합으로 1~2기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김석준 전 위원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출범 방향 보고, 스마트한 회의 참여와 토론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4년간 농민이 함께하는 삼락농정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통해 삼락농정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제3기 위원회는 전북도의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농민 공익 수당의 도입을 위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삼락농정위원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가정용 소비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 농가당 최대 5천만원 사업비 보조

전북도는 앞으로(2019년 4월 25일 시행, 단 1년간 유예) 가정용 소비 달걀은 의무적으로 선별된 업종인 식용란선별포장에서 처리 유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납품하거나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달걀을 판매하던 소규모 농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인 중 또는 유기식품인증을 받고 HACCP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직거래가

가능하다.

전북도의 산란계 농가는 모두 142호로 73호가 전업농이고 69호가 소규모 농가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20호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거나 위탁 방식으로 달걀을 유통할 계획이고, 5호는 폐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17호는 기존과 같이 직거래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직거래를 희망하는 농가 17호 중 9호는 직거래가 가능한 인증

을 받지 않아 현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이들 농가에 대하여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농가당 5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 보조 등 지원을 통해 유통 통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이 1년간 유예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산란계 농가 등 관계자와 개선방향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 우리 함께 만들어요”

도, 살수·도로청소차 대폭 확대 공공·행정기관 차량2부제 준수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전북도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환경분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군에 있는 도로청소차 45대와 살수차(30대 임대)를 평사시보다 2배 이상 확대 운영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 내 재비산먼지를 적극 줄이겠다

고 6일 밝혔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시키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3,658대)하는 것을 더해 추가(1만대)로 도비와 시군비 226억을 올 추경에 확보해 40년 결집 것을 10년 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설치기 오래된 사업장은 인근 지자체와 함께 폐쇄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2부제 실시를 공공·행정기관은 철저히 지

키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한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쓰레기 및 농업잔재물 등 불법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한편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별 맞춤형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해 비상저감조치 시 미세먼지 발생원을 적극 차단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군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단속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기업속으로 찾아가는 전북일자리센터... 올해 목표는 미스매치 해소

고용위기 극복 위한 2인 1조 전담 취업지원팀 구성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 체감도 높은 신규 사업 추진

전북도가 고용약화 극복을 위해 전북일자리종합센터를 전면 개편한다.

전북도가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전북일자리종합센터는 2011년 3월 전북도청 1층 민원실 내 개소한 이래 지난 8년 동안 매년 1,000명 이상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제는 상담·알선 기능에서 더 나아가 전라북도 대표 일자리 플랫폼으로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장하

여 2인 1조로 그동안 도민들이 바라는 다양한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고객요구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올해에는 청년취업역량 강화교육(NCS) 등 만족도 높은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신규 사업으로는 면접비·자격증 지원사업, 제조업·경호·경비·HACCP 분야 구직자 교육비 지원, 구인수요와 훈련기관 연계 전문인력 취업지원 등 구인기업과 구직자 수요를 최우선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일자리종합센터는 도내 일자리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을 신규 추진하여 도민의 고객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도내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에게 일자리 사업을 안내하고 구인 상담을 진행하는 등 '기업속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가 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에 전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구직자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일자리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올해의 목표로,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을 통해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농촌에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수업'

전북국제교류센터, 도농교류협력사업 공모 선정... 농어촌 현장체험 기회 제공

전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작년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모하는 '2019 도농교류협력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농촌 체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농교류협력사업은 도시민, 청소년들에게 농어촌 현장체험 기회제공과 동시에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이 사업에 외국인들을 함께 참여시켜 전라북도 농어촌을 매개로 한 교류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국제교류센터는 지난해 고창에서 청보리밭·복분자체험, 고창 고인돌 및 운곡삼사르 습지 견학 등 내·외

국인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농어촌을 매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올해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시골학교가 돌아왔다!' 라는 주제로 남원·정읍·임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학교와 같이 과학, 음악, 미술 등 과목별 테마로 농어촌을 체험하며 전북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수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1회 남원에서 과학·음악시간을 통한 별자리 관측과 한국 전통 판소리 체험, 2회 역사·미술 시간에는 통학의 땅 정읍에서 역사 수업과 선비문화체험 프로그램,

마지막 3회 남원, 임실에서 국어·요리 시간에는 최명희의 '흔들'을 주제로 한 문학 기행 및 임실 치즈 체험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도농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전라북도의 핵심 도정목표를 추구하여 전북의 우수한 농어촌 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농촌으로 유도하는 한편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의 핵심 도정목표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도민과 외국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 및 자세한 일정은 추후 전북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www.jxca.or.kr)에 공고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황의성(1978. 1. 19.생 2018. 10. 11.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 법원 유승용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사건번호: 2019년단150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유승용
- ▶ 피상속인: 망 황의성(1978. 1. 19.생 2018. 10. 11. 사망)
-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98, 101동 1109호(삼천동1가, 신일강변아파트)
- ▶ 공고인: 황준연
- ▶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19. 2. 26.
- ▶ 공고기간: 2019. 3. 7. ~ 2019. 5. 6.
- ▶ 주소: (청구 대리인 법무사 김준영)전주시 덕진구 들사평1길 9, 스카이블루빌 101호, 한울 법무사사무소 (010-3703-7815)